



강진 김영일



고흥 한운섭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여수 김석철

제21회 함평나비대축제

성료... '티켓파워 입증'

11일 간 대장정 마무리... 31만 명 다녀가



지난달 28일 개막한 제21회 함평 나비대축제가 여전한 '티켓파워'를 과시한 채 지난 6일 폐막했다. 7일 함평군에 따르면, 올해로 21 회째를 맞이한 함평 나비대축제가 관람객들의 호평 속 6일 폐막식을 끝으로 11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 했다. 올해 나비축제는 잦은 비와 타 축제 기간과 겹치는 악재에도 지난해 보다 4만여 명 늘어난 31만 666 명의 총 입장객 수를 기록했다. KTX 함평역 정차, 승차권과 결합 한 축제 입장권 할인 판매 전략이

수도권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먹혀 들었다는 평이다. 입장료 수입은 지난해부터 실시 한 군민 무료입장 탓에 지난 2017년 기록했던 최고 입장료 수입(9억 8200만 원)에는 못 미쳤지만, 지난해 보다 1억 5천여만 원 늘어난 9억 5500여만 원을 기록하며, 사실상 최근 10년 새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9억 원의 축제개최비용을 상회하는 입장료 수입을 달성해 전국의 몇 안 되는 흑자축제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농·특산물 판매장을 비롯한 축제장 내 각종 판매장 수입도 화려하다. 군민이 참여한 농·특산물 판매장은 지난해보다 1억 5천여만 원 늘어난 4억 255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여기에 각종 판매장 매출과 부스 임대료 수입 등을 합하면 축제장 내에서만 10억 1100만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려 8년 연속(13회~21회, 16회는 세월호 참사로 취소) 10억 원 돌파라는 진기록을 남겼다. '나비와 함께하는 봄날의 여행'이란 주제로 열린 올해 나비축제에서는 총 24종 21만 마리의 나비는 물론, 33종 42만 본의 다양한 초화류, 60여 종에 이르는 다채로운 공연·체험프로그램들이 관광객들을 맞이했다. 이윤형 함평군수는 "올해 나비축제가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려주신 자원봉사자와 500여 공직자, 군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뤄낸 성과 보다는 올해 부족했던 부분에 더욱 집중하며 내년 나비축제가 더 좋은 환경과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평=김광훈 기자

광양시, 상자모 공급 적기 모내기 추진

내달 중순까지 농가 신청 전량 263,792상자 공급



광양시는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맞아 적기에 모내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대화자동화된 벼 육묘장에 서 생산된 건실한 상자모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

령화에 따른 농촌인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2010년부터 시 특수시책으로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3억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가에서 신청한 새일미 단일 품종 263,792상자 전량을 공급한다. 그동안 시는 모 이앙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상자모 공급을 희망 시기가 5. 25.~6. 10.까지 집중됨에 따라 육묘연차와 벼 재배농가 간 원만한 이앙시기를 조정했다.

우선, 벼 조기재배 단지를 우선으로 지난 3일 계획량 대비 약 6% 정도인 15,000상자를 공급했다. 이어 오는 13일부터 상자모를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해 6월 중순까지 순조롭게 공급될 것으로 본다. 우미자 친환경농업팀장은 "그동안 상자모 공급을 통해 벼 재배 노동력의 20%를 절감할 수 있어 농가의 고령·영세화로 인한 농촌의 부족한 일손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영농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는 쌀 생산의 안정적인 기반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자모 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화순군, 힐링푸드 사업 '푸드 코디네이터' 모집

오는 28일까지 방문·우편·이메일 접수...15명 내외 모집

화순군이 오는 28일까지 '힐링푸드 여건 조성사업'에 이어갈 힐링푸드 코디네이터 15여 명을 모집한다. '푸드 코디네이터'는 힐링푸드 여건 조성사업에 추진위원으로 참여해 화순의 대표 음식을 개발하고 음식 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힐링푸드 전문가 양성 교육 참여, 개발 음식 활용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힐링푸드에 관심이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년(만18세~30세), 관내 음식 관련 창업 예정자 등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누리집(www.hwsun.go.kr)에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건설과 농촌개발팀(☎61-379-3771)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이 추진하는 힐링푸드 여건 조성사업은 지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억 원(국비 7억·지방비 3억)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군은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푸드 콘텐츠 개발, 푸드 전문인력 양성, 홍보·마케팅 인프라 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영광군,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영광군은 지난 3일 한전문화회관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5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 및

음식문화개선 결의대회를 가졌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영광군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식

품위선법과 정책방향, 식중독예방 및 위생관리, 음식점 식품 원산지 표시 방법, 경영마인드 및 친절하고 고객대우령 강의로 영업자들의 역량 강화에 힘썼다.

영광=서희권 기자

순천시,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 10일 개막

순천시는 세계 30개국 주한대사가 정원 속 세계인의 축제인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 개막식 참석을 위해 오는 10일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는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참가한 13개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문화 교류의 계기를 마련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정원으로 인지도 확산을 위

해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펼쳐지는 축제다. 축제 기간 동안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 전통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 특히, 10일에는 공군 군악대와 비보이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의 개막을 알리게 된다. 이와 함께 세계 30개국의 주한대사가 참여하는 자연과 지구

를 지키는 아름다운 약속인 '녹색선언 세레모니'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한다. 개막식 이후에는 음악대장 하현우로 널리 알려진 '국카스텐'의 축하무대가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페스타 기간 동안에는 진행되는 '세계문화 폴리마켓'은 세계 각국의 문화를 만나고 즐기는 지구촌 장터로 각 나라의 음식, 특산물, 공예품, 체험 등 정원에서 다양한 세계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성군, 대한민국 지역축제의 새로운 판도 제시



보성소리축제, 전국 최대 철쭉 군락지에서 펼쳐지는 △일립산 철쭉 문화축제, 해양관광의 폭을 넓혀줄 △울포해변 활어잡기 페스티벌을 동기간에 개최했다.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는 유사·중복 축제 통합 취지와 맞춰보면 보성군의 시도는 꽤나 과감하다. 매 축제마다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축제 통합으로 대폭 줄이고 이를 내실 있는 콘텐츠 구축에 재투자한다는 결정은 축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다. 군 전체를 하나의 축제장으로 만들어, 관광객들에게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하면서 더 오랜 기간 지역에 머무르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게 한다는 것이 보성군의 전략이다. 무대설치에서부터 축제 홍보 팸

플릿까지 통합하여 절감한 예산은 밤이 되도록 끝나지 않는 축제를 탄생시켰다. 예산 부족으로 낫 시기에 마무리 되었던 축제는 통합으로 전 기간 축하 공연을 가능하게 했다. 보성군은 하루 간격으로 차(茶) 축제, 소리축제, 철쭉제, 활어잡기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매일 새로운 즐길 거리를 관광객을 붙잡았다. 박제된 전통은 의미를 잃고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발전하여야 오래 간다는 법을 굳은 알고 있는 듯하다. 길게는 50년 가까이 단적으로 펼쳐지던 축제를 통합한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 보성 통합 축제는 여러모로 개성 없이 쏟아지는 지역 축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도발적이고 선진적인 축제다. 특히, 보성을 시내 활성화 성공사례는 진도 등 인근 시군부터 전북 무주군, 경북 예천군 등 축제 관계자들이 선진지 견학으로 둘러보고 갈 정도였다.

보성=안구일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권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권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